

대구불교계, 서문시장 대형화재 피해상인 돕기 나서

화마 딛고 불심으로 희망 찾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신도들이 1월4일, 화재피해를 당한 상인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고 있다.

1월 5일, 대구 서문시장은 여전히 매캐한 화기가 진동하고, 대형화재로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은 피해상인들의 절규와 호소, 울부짖음이 가득했다. 설날을 앞두고 활기에 넘쳐야 할 2지구 상가건물은 붕괴위기를 맞아 검게 그을린 채 황폐스런 모습을 드러냈고, 아직 남아있는 두 대의 소방차와 주위를 점검하는 소방대원들이

29일 악몽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지난 12월 29일, 영남지역 최대의 재래시장 중 하나인 대구 서문시장에 발생한 대형화재는 2지구 1160여 개의 상가를 고스란히 잿더미로 만들었다. 오갈데 없는 상인들은 서문주차 빌딩 앞에서 대체 상가 마련을 요구하며 추위도 아랑곳없이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상인 중 60~70% 이상이 불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역불교계가 피해상인 돕기에 나서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서문시장 불자 상인들로 구성된 서문자비거사림(회장 김강식)은 화재가 발생하

서문시장을 방문해 피해상인들을 위로하고 스님과 신도들이 모금한 성금 이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지성 스님은 "이번 화재를 서문시장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회회복의 계기로 삼고, 모두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구 사원주지연협회(회장 법해)도 7일 성도절 기념 대법회에서 성금을 모금한 후 피해상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장 우택)는 장엄 정도회(회장 김상갑)의 주관 하에 스님과 전신도가 하나 되어 피해상인 돕기에 나섰다. 불자 상인들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1월 4일부터는 서문주차빌딩 앞에서 컵라면과 따뜻한 차를 나눠주며 봉사

서문자비거사림회 상황파악 및 도우미 나서 동화사 스님 신도들 모금한 성금 전달 위로 영남불교대 15명씩 3교대 봉사 활동 벌여

자 조계종 9교구 봉황 봉사단과 함께 진화작업을 하는 소방관을 도우며 즉각적인 활동에 나섰다. 회원들 5명이 피해를 입는 등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서문자비거사림회는 누구보다 서문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 피해상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불교계에 전달하고 도움을 주신다는 등의 안내도 도맡았다.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3일 총무국장 선광 스님, 허석구 신도회장과 함께

활동을 펴고 있다. 또, 16일부터는 피해상인 돕기 바자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기수별 모금활동도 벌이고 있다. 영남불교대학은 상인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매일 3교대로 15명씩 나와 봉사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서문자비거사림회 김강식 회장은 "이처럼 어려운 때 불자들이 나서 부처님의 동체대바사상을 실천하며 부처님 정법수행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불자들의 자비행을 요청했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경북도 불교유산 2건 도지정문화재로

문수사 묘법연화경·서악사 석가모니후불탱



구미 문수사 '묘법연화경'

경상북도는 구미 문수사 소장 묘법연화경과 예천 서악사 석가모니 후불탱화를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1월 2일 예고했다.

구미 문수사 묘법연화경은 1477년 조선 성종때 고산 화엄사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당시의 서체와 양식, 도각 등이 잘 드러나 있고, 예천 서악사 석가모니 후불탱은 1770년 제작된 선묘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상단에 넓적한 풍대가 그려져 있으며, 사천왕상이 둥근 원속에 배치된 점이 다른 불화에서 찾기 힘든 특징이다.



예천 서악사 석가모니후불탱화.

경상북도는 한달간의 공고를 거쳐 이들 불교유산을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성주사암연회 시무식

성주사암연회(회장 법연, 천불사 주지)는 1월 4일 천불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지역불교를 이끌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시무식에서 회장 법연 스님은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 발족

'붓다의 향기-겨울날의 축제' 갖고 15일 출범

수익금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가 1월 15일 오후 1시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김홍국, 현철, 조항조 등 유명한 불자 가수들이 출연하는 대규모 행사 '붓다의 향기-겨울날의 축제'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지부장 송시향)는 대구 여래선원 주지 해선 스님을 지도법사로 약 20여명의 회원이 모여 발족을 준비하고 있고, 약 30여명의 지역불자들이 은혜사 주지 법다 스님과 의성 운암사 주지 동경 스님을 각각 후원회 총재와 지도

법사로 추대하고 후원회(회장 이응우) 발족도 준비하고 있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 '여명의 소리'에는 대한불자가수회장 김홍국씨가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2부에는 박인일 교수의 초청강연이 이어진다. 3부 '겨울날의 축제'는 김홍국, 조항조, 현철 등 유명한 불자 가수들이 대거 출연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2004년 전국대회를 기획한 올림픽씨가 무대기획을 맡아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의 화려한 출범을 알릴 예정이다. 지도법사 해선 스님은 "지난해 12월 김홍국씨를 만난 자리에서 타종교에 비해 불자가수에 대한 교계 지원이 열악해 원로가수들의 계층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를 발족시켜 이글겠다는 발원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비는 1만원,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는 행사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 소년소녀가장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053)583-8001 배지선 기자

"성주사암연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구상중이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3년 인가동안 지역 불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첨단, 자연이 만난 아이들 공간

3월 준공앞둔 대구 '참좋은 유치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301-20번지에 높게 솟은 참좋은 유치원은 외형을 완전히 갖추고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 2003년 8월 시작한 불사가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물론 실내 내장작업이 만만치 않지만 굵직한 틀이 잡힌

에 불과하지만 최첨단 방송장비와 조명시설을 갖추게 된다. 어린이들의 다양한 활동과 불교 상담활동 등을 녹화해 불교계 방송매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방송실은 원아들이 직접 참여해 방송 활동을 하고 각 교실에서 방송을 듣고 볼 수 있도록 꾸며진다.

4층과 5층은 약 1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고, 6층과 7층은 도심속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다. 화강실이 딸린 20개의 개인 방사가 층마다 있고, 중간에 대중선방이 있다.

지하부터 7층까지 그야말로 참 좋은 유치원이다. 그러나 참 좋은 유치원의 숨겨진 자랑은 8층에 있다. 어린이 실내 수영장장과 생태공원이 들어서는 8층은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 육상에 모셔둔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어 하늘법당이라고도 한다. 어린이 수영장은 자

양호실 멀티미디어실 등 마련 2층 방송실 눈길

부처님 볼 수 있는 야외생태공원 유치원의 백미

상태, 천진면목 동자들이 뛰어다니는 유치원을 상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대지 508평, 건축연면적 2500여 평,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물은 규모면에서 지역 최고다. 참좋은 유치원 건물의 다른 명칭은 육불보전. 그대로가 부처님 성전인 셈이다. 들어가는 입구 3층 높이에는 8m 규모의 관세음보살을 봉안할 예정이다.

지하1, 2층은 주차장, 기계실, 식당이 들어서고 1층부터 3층까지가 유치원 전용 공간이다. 유치원에는 30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15개 학급이 들어선다. 교실마다 어린이 화장실과 사물함, 학부보 참관실이 따로 있고, 각종 자료실은 물론 목욕 버튼을 누르면 보안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기계 설비를 할 예정이다. 그 외 유치원에는 양호실과 전시실, 탁아실, 사천궁, 사물놀이실, 멀티미디어실, 전통기악실, 다례실, 무용실, 음악실, 피아노실 등이 마련되는데 무엇보다 2층에 들어서는 방송실과 스튜디오가 이색적이다. 스튜디오는 약 50여 평정도의 공간

연채광을 고려해 투명한 재질의 지붕을 덮고, 야외생태공원에는 연못과 8각 정자가 마련된다.

영남불교대학은 3월 준공을 하면 영남불교대학 입학식을 옥불보전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유치원은 2007학년도에 개원할 계획이다. (053)474-8228 배지선 기자

각종 통증/난치병
양심명의 3대비법 요/배개

원인모름 오랜통증 주무시 면서편 인하게 치료완
난치병 치해방

증상 치료가 아닌 병근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1:1 완전 맞춤 치료

양심적 전문의들이 만듭니다
유비 닥터스 02)782-0022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이끌려가지 않고 이끌어가는 삶,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見性を 넘어成佛로 가는 법

스스로의 인과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갈구하는 자들의 필독서 - 자재정사 정오스님
나는 어디에서 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 동이대학 이재기 교수
극단적 선택에서 벗어나고, 자기 업식을 계도하고, 인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김중영 행정학 박사

수련회 안내

- 서울 수련회(신년): 매달 둘째 주 토요일 ~ 수요일
- 연화사 수련회: 매달 넷째 주 주중

수련회 장소와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http://www.kwan.or.kr/>) 또는 전화(054-682-7770)로 문의 바랍니다.
※ 위의 수행을 통해 면역정질환과 천인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연화 TEL 02)302-8145, 054)682-7770 / FAX 054)682-8155 <http://www.kwan.or.kr>

●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와 선정법과의 관계 ●

선정	일선정 一禪定	이선정 二禪定	삼선정 三禪定	사선정 四禪定
여덟진로	중심자리를 인식하고 편안함을 세운다	중심분리를 통해 중심을 표면과 이면으로 나눈다	표면은 철벽, 이면은 텅 비워진 상태	철벽이 허물어져서 텅 비워졌다
근본의 일	안팎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대한다	표면의 움직임과 움직임이 없음에 관여되지 않는다	이면의 비워짐에 의지를 집중한다	표면의 공과 이면의 공이 합일을 이루었다
면모의 일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색의식의 발현)	의식의 일치를 이룬다 (수위의식의 발현)	존재목적 설정하고 이치를 타파하며 자기사상을 갖춘다 (상위의식의 발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다 (행위의식의 발현)
각성의 일	표면적 유희와 색의식의 발현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각성	미세적 유희와 미세명념을 제도할 수 있는 각성	돈독한 미세적 유희	일시적 무위
자기제도	장부순화 (음수면을 통한 장부순화, 중심의 편안함을 통한 장부순화)	취추순화 (취추법에 내장된 업식의 순화)	감비배 순화 (감비배에 내장된 업식의 순화)	위장 소강 대강의 순화, 황정의 형성과 꼬리배순화, 제약
교류성의 확보	표면적으로 드러난 관계에 충실한다	인과적 관계의 교류를 행한다	교류적 관계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조화적 관계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존재목적의 실현	있는 그대로 본다	혼의식을 일깨우고 외부의식과 교류한다	세계뿐만이 아니라 무세계에서도 자기를 실현한다	조화의 성취
인식의 틀 깨기	경계를 대하는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공고히 한다 (근본의 인식에 충실한다)	중국을 자극해서 선천기를 표출시키고 그로써 중심이 철벽이 되도록 한다	자성의 공을 증득한다	오기의 조화와 무상삼계의 증득

※ 이화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비상비상처정(非非非非處定), 상수월정(受受受定)에 대해서는 이름다른 세상觀 수련회(<http://www.kwan.or.kr/>)를 참조하십시오.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깨달이고 때가 되어서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른다는 것은 인간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씨가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없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섬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성대학교 농대 교수)